| 현불 논단 |

소통, 분노사회 치료한다



이화행 교수
동명대 신문방송학과

참혹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장 강력 처벌" 국민 공분

병적 분노사회가 단순 원인 아냐
의사소통 구조 변화도 주목해야
개인 중심되는 온라인 공간 소통
집단 응집력 · 사회적 합의 약화

분노 아닌 '관용사회'를 지향해야
오프라인, '공생의 장'으로 회복을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높은 가운데, 피의자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청원이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피의자는 분노로 인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알려진 사건의 살해 정황이 상상하기조차 싫을 정도로 끔찍하다는 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토대로 사회 전체를 병적 분노 사회로 치부하는 일부 선정적 보도는 논리 비약일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에도 도움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을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하려는 시각도 바람직하지 않다.

분노를 다스리는 힘의 원천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마음에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분노와 그로 인해 발생한 사건의 책임을 궁극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시각이 크게 그르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끔찍한 사건의 원인은 개인 인성의 문제로부터 사회의 구조적 모순, 정치적 미성숙, 시대적 환경의 변화 등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이고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에서부터 미시적 관점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커뮤니케이션 학자로서 필자는 정보시대의 도래로 인한 커뮤니케이션 구조 변동과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에서 분노사회의 원인과 배경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인류 공동체의 기본 속성이다. 대행 선사가 말씀하신 공생 · 공심 · 공용 · 공체 · 공식하며 사는 인간 삶의 원리이다. 이 원리로 인하여 인류에게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즉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과거 농경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산업사회에서는 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주를 이뤘다. 사람들은 만나서 얼굴을 마주하면서 대화하고 소통하였던 것이다. 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사람들의 만남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공간으로 옮겨 놓았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비언어적 요소와 사회적 실재함이 결여된다. 사람을 직접 만나서 대화할 때 우리는 얼굴 표정이나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절제하면서 서로간의 관계를 유연하게 형성해갈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비언어적 요소가 적을수록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더욱더 비인간적인 양상을 갖는다. 컴퓨터나 휴대폰의 자판을 거쳐 이뤄지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상대의 존재감을 약화시키고 사람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증대시켜 비인간적이고 이로 말미암아 집단 간의 응집력을 약화시킨다.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보다는 개인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위계와 같은 집단규범적 요소가 약화한다. 사회집단 구성원간에 형성된 사회적 합의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한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공동체는 구성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작동할 때 건강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하다. 인간적이면서도 분절되지 않은 커뮤니케이션 패턴과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분노가 아닌 인내와 관용의 확산을 추구하는 사회, 그 사회가 우리가 지향해야할 사회인 것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상의 균형을 잡는 일이 쉽지 않지만, 오프라인 공간이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서, 공생의 장으로서 제 기능을 회복하도록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자칼럼
노덕현 취재부 차장

사찰 응급교육 상설화 필요

지난 10월 3일 제주 관음사 관음굴에서 60대 남성 K씨가 쓰러졌다. 이를 발견한 관음사 신도 임인숙 씨(불교자비원 前재가복지센터장)와 조은성 씨(관음사 관음자비량합창단장)는 신속한 대처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이 남성을 살렸다.

이들은 사고가 발생되기 불과 몇 주 전 관음사에서 배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떠올리며 응급처치에 들어갔다. 그 후 119구급대원이 도착했고 병원으로 이송된 이 남성은 곧 깨어나 안정을 취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심장마비 사고는 흔한 질병이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심장질환과 관련해 사망한 이은 10만명당 43.6명으로, 암과 뇌혈관질환에 이은 세 번째 질환 요소로 꼽힌다. 이 심장질환 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심장마비로 급사율이 80%에 달한다.

아직까지는 사찰에서의 심장마비 사고가 드물지만 제주 관음사의 사례처럼 고령화로 인해 사찰 내 방객의 연령이 높아지는 만큼 심장마비 사고 빈도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사찰은 대부분이 산중에 위치해 있어 그 위험성은 더욱 높다.

소방재청 119신고 접수 후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8분 18초에 달한다. 사찰이 처한 환경적 요인으로 실제 구급차가 사찰에 도착하는 시간은 8분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사찰에서 사고 발생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킬 수 있는 최선책은 무엇일까. 심폐소생술에 대한 대중화와 불자들도 쉽게 사용 가능한 자동심장충격기(AED)의 보급을 들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을 비롯해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공공기관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율도 2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활용한 교육 등은 언감생심이었다. 그로인해 우리나라에서 심장마비 사고가 발생시 살아나는 환자는 4.6% 밖에 되질 않는다.

반면 미국은 생존율 40%를 보이고 있고, 기타 선진국들도 평균적으로 15%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심정지 환자에 대한 생존율이 높은 미국의 경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부터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을 포함한 심폐소생 교육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국민 개개인이 응급조치 방법을 알고 있기에 미국의 심정지 환자 소생율이 40%에 달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8월 본지의 연속 기획으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라이나전성기재단의 후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찰에 보급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총 29개 사찰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됐다. 보다 많은 사찰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보급되어야 함과 동시에 미처 보급되지 못한 사찰에서는 이 기계 없이도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단 차원에서 사찰방재의 날처럼 사찰안전의 날을 따로 지정해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안전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골든타임을 지키는 심장자동충격기와 이를 직접 사용할 수 있어야 생명을 살린다.

제주 관음사의 안전교육 사례처럼 지금부터는 사찰에서 보다 관심을 갖고 활발한 응급조치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사찰이 보다 안전한 곳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社說

'불복장 작법' 지정 예고에 부쳐

불상과 불화 내부에 불교 관련 물목(物目)들을 봉안하는 의식인 '불복장 작법'이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된다고 한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지정 예고를 10월 30일에 발표했다. 보유단체로는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이하 불복장의식보존회)'가 함께 인정 예고됐다. 별 이변이 없는 한 불복장 작법은 앞으로 30일 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지정이 확정된다.

불복장 작법은 1500년대부터 간행된 〈조상경(造像經)〉을 바탕으로 조선 시대에 활발하게 설행됐지만, 앞선 고려 시대부터 설행돼 700년 이상의 전통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불복장 작법은 봉안 의식을 통해 세속적인 가치의 불상 · 불화에 신앙적 가치가 부여하고 예배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불복장 작법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은 이 같은 역사적 · 종교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런 성과는 2014년 설립된 불복장의식보존회와 조계종의 노력으로 이뤄졌다. 실제 불복장의식보존회는 시연회를 비롯해 학술대회, 전시 등을 통해 비장(秘藏)됐던 불복장 작법을 대중들에게 알렸고, 종단은 이를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이제는 지정 이후의 사업들을 준비해야 한다. 통일된 불복장 의식을 정립해야 하며 보존회 소속 5명 스님들에게 전해졌던 작법들도 계승 · 발전시켜야 한다. 불복장의식보존회에서는 '불복장 작법'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도 추진하다고 하니 기대해 볼 일이다.

앞으로도 불교 무형유산 발굴 · 보존 사업이 활성화 되길 바란다.

투명한 해외구호 계획 기대한다

지난 7월 라오스 댐 붕괴 사고로 인한 현지인들의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조계종이 NGO단체들과 현지 구호 공동대응을 위해 힘을 모았다.

이에 따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로터스월드, 지구촌공생회 등 불교계 NGO를 비롯해 아시아협력기구, 태화복지재단 등과 함께 아동청소년들의 중단된 학업문제 해소에 나선다. 무엇보다 천막을 활용한 교육공간 구축, 학습물품 등 교육기자재 구비, 정수시스템 및 위생설비 구축 등 구체적인 공동 구호 계획을 세워 눈길을 끈다.

반면 지난 9월 대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해 15조2900억 루피아(한화 약 1조15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추정되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불교계 지원은 아직까지 수면 아래에 있다. 지진 발생 약 2주가 지난 뒤 (재)아름다운동행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강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에 불자 모두가 아픔을 함께 나누고, 조속한 생활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자 모금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혔을 뿐이다.

이후 조계사와 화계사가 10월 16일 각각 2000만원, 1000만원을 기탁하며 모금에 대한 불씨를 키웠지만 본지 취재결과 현재까지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최 측은 11월 말까지 모금한 뒤 모금액 규모에 따라 12월 중 계획을 세우겠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본래 모금사업은 모금 이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취지에 맞게 모연해 투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그간 불교계도 이에 맞춰 사업을 추진했다. 인도네시아 지원사업도 성황리에 이뤄지기 위해선 분명한 계획 발표가 선행돼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 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 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쪽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누가 집에 들어와서 음식에 약을 타서 먹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한다거나 성격이 포악하고 욕을 잘하는 경우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 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초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악령귀신도 불법승으로 단 한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 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평화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번이나 했는데 안되더라 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반드시 해결되는데 믿지못하고 의심하고 망설이는 것은 또 뭐꼬!!!

귀 대한불교 자비사 예약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